

노아와 방주

-네 번째 이야기-



23Page

나 레 이 셴 아담과 하와가 살던 때로부터 여러 해가 지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사람들로 인해 이 땅이 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화가 아주 많이 나셨어요.

하 나 님 세상에 폭력과 악이 가득하구나. 내가 사람들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 내가 곧 그들을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나 레 이 셴 그러나 이 땅에 착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노아였어요. 노아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하 나 님 노아야, 내가 이 땅에 큰 홍수를 일으켜 세상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너의 가족들 그리고 생명이 있는 모든 육체 한 쌍씩을 살려둘 것이다. 너는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어라!

나 레 이 셴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이 새지 않는 큰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어요.

남 자 물이 없는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다니~ 노아가 드디어 미쳤구만~!
여 자 호호호 그렇게 말이에요~ 이 세상에 큰 비가 내릴 거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맑은 하늘에 큰 비라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요~



24Page

나 레 이 셴 노아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모든 동물의 암수가 들어갈 수 있는 큰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 나 님 지금부터 7일 후에 40일 밤낮으로 비를 내릴 것이다.

나 레 이 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날에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갔어요. 코끼리, 사자, 기린, 하늘의 새까지, 방주는 동물들로 가득 찼지요. 방주로 들어간 사람은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아들 셋, 함, 야벳과 세 며느리 모두 여덟 명뿐이었어요.



25Page

나 레 이 셴 방주의 문이 닫히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밤낮 없이 쉬지 않고 비가 내렸어요. 점점 물이 불어나더니 세상이 온통 물에 잠겼어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 외에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한지 40일이 되던 날, 드디어 비가 그쳤어요.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26Page



27Page

하지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은 안전했어요.

어느 날, 노아는 비둘기를 밖으로 날려 보냈어요. 그러자 처음엔 앞을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7일 후 다시 비둘기를 보냈어요.

이 번에는 올리브 나뭇잎을 물고 왔어요. 그래서 노아는 물이 땅에서
빠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 레 이 션 홍수가 난지 370일이 지나고 땅이 완전히 마르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 나 님 노아야 너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나 레 이 션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서 나왔어요. 동물들도 모두 줄지어 나왔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하 나 님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 레 이 션 하나님은 하늘에 아름답게 빛나는 무지개를 띄워 주셨어요.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시'예요.